

## 이랜드 스파오, '포켓몬 티셔츠 컬렉션' 출시

이랜드의 SPA(제조직매입) 브랜드 스파오가 '포켓몬 티셔츠 컬렉션'을 선보였다. 전설의 포켓몬으로 불리는 '뮤츠' 한정판 등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 좋은 반팔 티셔츠 5종으로 구성했다. 포켓몬별로 다양한 프린트와 색상으로 출시했으며, 고객에게 최대 포켓몬을 고를 수 있는 재미를 선사한다. 글로벌 인기 캐릭터인 포켓몬과의 협업을 통해 전 연령대 고객에게 어필할 계획이다.



## GS칼텍스, 카카오·LGU+·제주항공 등과 'UAM 컨소시엄' 협약

# 주유소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 뜬다

GS칼텍스, 주유소에 버티포트 구축 천장 공간이 개방되어 이착륙 용이 카카오, 자동체크인 등 솔루션 개발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기체 제작 컨소시엄 "UAM 상용화 지속 노력"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가 모빌리티 기술 선도 기업들과 손잡고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GS칼텍스는 도심에 비롯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주유소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명 '하늘을 나는 택시'라 불리는 UAM의 이착륙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GS칼텍스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LG유플러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UAM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K-UAM 상용화를 위한 컨소시엄 출범

Signing Ceremony for K-UAM Grand Challenge Consortium

GS칼텍스, JEJUair, kakao, LGU+, PABLO AIR, VERTICAL

▲GS칼텍스가 지난해 고양시 킨텍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선보인 미래형 주유소 전시관 조감도.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UAM 컨소시엄 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이상원 전무, 카카오모빌리티 유승일 부사장,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LG사이언스파크 박일평 사장, GS칼텍스 장인영 부사장,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에두아르도(Eduardo) 최고성용화책임자(CCO), 파블로항공 김명준 대표 (왼쪽부터). 사진제공 | GS칼텍스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은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브랜드챌린지'(K-UAM GC) 1단계 실증사업에 참여해 UAM 산업 초기 생태계에 진입하고, 더 나아가 향후 UAM 산업에서의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K-UAM GC 1단계 실증사업은 2025년까지 UAM의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비행체의 안전성, 교통관리 기능 시험 등을 통합 운영하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올해 참가자 선정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개발지 실증 비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 ●역할 분담해 UAM 사업 가속도

이번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UAM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GS칼텍스는 주유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UAM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Vertiport)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유소는 도심에 비롯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천장 공간이 개방되어 비행체가 이착륙하기 용이해 UAM 거점으로 적합하다. 버티포트 구축 시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동체크인 및 보

안검색기능 등을 구현한 버티포트 솔루션 구축을 담당하고, 완성형 모빌리티 서비스(MaaS) 앱 '카카오 T'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상과 상공을 포괄하는 멀티모달(Multi-Modal)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한다. LG유플러스는 UAM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통제해 기체 간 충돌 및 장애물 충돌을 막는 교통관리시스템과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항공 전문인력과 운항 관련 시스템 등 그동안 축적된 항공운항 노하우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파블로항공은 드론 솔루션·서비스 전

문기업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관리 시스템(PAMNet)을 개발한 노하우를 살려 UAM 통합운항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이 사용할 기체는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는 전 세계 시장에 1350여 대 이상의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 제작 선주문을 받은 글로벌 리딩 UAM 기체 제조사다. 시범 비행은 2024년 열릴 파리 올림피아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 이후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과 협업해 UAM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주유소를 UAM을 비롯해 전기차 충전, 수소차 충전, 카셰어링, 드

론 배송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S칼텍스는 이번 협약에 앞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와 두바이엑스포에서 UAM 거점 역할을 하는 미래 모습을 선보인 바 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1월 열린 CES 2021에 참가해 미래형 주유소 영상을 출품하면서 주유소가 드론 배송 및 UAM 거점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구현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열린 두바이엑스포의 한국관 증강현실(AR) 콘텐츠에서는 수소충전소가 UAM 거점으로 활용되는 미래 도시 모습을 구현하기도 했다.

원성별 기자 sereno@donga.com



광화문D타워점에 선보인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테이블. 사진제공 | 스타벅스

## "커피찌꺼기 재활용률 100% 목표" 스타벅스, 지속가능 경영 강화한다

스타벅스가 커피찌꺼기 재활용률을 100%로 높이는 지속가능 경영을 강화한다. 커피찌꺼기는 그간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3월15일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에 스타벅스는 전국 매장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에 대해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가 통과되면 순환자원 인증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재활용률을 100%까지 높일 방침이다.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 다양한 MD 상품도 마련한다. 앞서 2015년 광화문D타워점을 오픈하면서 테이블, 조명 갓, 인테리어 마감재 등에 커피찌꺼기를 시범 활용하고, 커피찌꺼기가 첨가된 식물 배양토를 담은 꽃화분을 만들어 증정한 바 있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유한한 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다양한 업사이클링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 LG엔솔-RIST, 스마트팩토리 첨단기술 공동연구



LG에너지솔루션 CPO 김명현(왼쪽) 사장과 RIST 남수희 원장. 사진제공 |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과 포항산업과 학연구원(RIST)이 스마트팩토리 분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를 나선다. 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RIST는 충북 흥덕구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에서 '스마트팩토리 공동연구 협약서(MOA)'를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실 세계를 온라인 공간에 똑같이 구현하고 다양한 모의 실험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측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등 스마트팩토리 분야 첨단기술 연구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레이더(Lidar) 기술을 이용한 실물 대비 3D 모델링 기술 등 RIST가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술을 LG에너지솔루션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 더 강력해진 2022년형 그랜저... "고객 선호 옵션 기본화"

12.3인치 컬러 LCD 등 전제트림 적용 첨단 안전 사양도 기본... 안전성 강화 스웨이드 내장재 추가해 고급감 높여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강화한 '2022 그랜저'.

현대자동차가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강화한 '2022 그랜저'를 11일 출시했다. 현대차는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와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를 전제 트림에 기본화해 경쟁력을 높였다. 인기 트림인 르블랑에는 상위 트림에만 적용됐던 스웨이드 내장재와 뒷좌석 수동커튼 등을 기본 사양으로 추가해 고급감을 더했다. 또한 ▲전방 충돌방지 보조(자전거 탐상자/교차로 대향차) ▲고속도로 주행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 및 재출발 기능 포함)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 곡선로)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지능형 안전 사양을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기본으로 탑재해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에는 고객 선



사진제공 | 현대차

호도가 높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했다. 2022 그랜저의 판매 가격은 3392만~4606만 원(개별소비세 3.5% 반영 기준)이다. 원성별 기자



## LF 알레그리, 더현대 서울 팝업스토어 오픈

LF의 남성복 브랜드 알레그리가 19일까지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3층에서 팝업스토어(사진)를 운영한다. 브랜드의 상징인 기하학 패턴을 매장 전면에 적용하고, 거울을 천장과 벽면 곳곳에 배치하는 등 브랜드가 추구하는 혁신의 가치를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표현했다. 주력 제품은 '에어닷 셋업'이다. 원단 사이에 미세한 구멍이 들어간 에어닷 소재를 사용해 통기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여름 시즌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오픈 기념으로 팝업스토어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에어닷 셋업을 준다.